

연예뉴스 HOT 5

이정재-임세령 전무, 미술관 행사 동석



이정재 임세령

배우 이정재와 그의 연인인 대상그룹 임세령 전무가 미국 미술관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1일(이하 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반 출국해 화제가 된 이들은 3일 미국 LA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린 'LACMA 아트+필름 갈라'에 동행한 사실이 4일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미술관의 영화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운영기금 모금 행사로 이정재와 임 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했다. 배우 이병현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정재와 임세령 전무는 2015년 1월 연인 사이를 공개했다.

'1박2일' 시즌4, 연정훈·문세윤 등 확정



연정훈 문세윤

새롭게 선보이는 KBS 2TV '1박2일' 시즌4의 멤버가 확정됐다. 기존 출연자인 가수 김종민을 비롯해 연기자 연정훈·김선호, 개그맨 문세윤, 래퍼 댄딘, 그룹 빅스의 멤버 리비가 12월 방송하는 '1박2일' 시즌4를 이끈다. 이들은 이달 중순 촬영을 시작한다. 앞서 시즌 3는 3월 멤버였던 가수 정준영이 이른바 '단톡방 몰카' 파문으로 구속되면서 물의를 빚으며 제작 자체가 중단됐다.

SM엔터, 美 최대 에이전시와 손잡아

SM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최대 에이전시와 손잡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 무대를 확장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10월17일 미국 CAA와 글로벌 그룹 슈퍼엔터테인먼트의 활동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CAA는 미국 최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다. 양측은 SM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과 TV프로그램 제작, 광고 등에서 협력기로 했다. 슈퍼엔은 지난달 데뷔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비아이·양현석, 오늘 경찰 조사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3)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 양현석이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일 양현석을 불러 조사한다. 양현석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흡입 혐의와 관련해 가수 연습생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진술한 뒤 번복했다. 이후 올해 6월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다. 앞서 9월 비아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기획 점검 | 무차별 혐오와 공격, '평점 테러' 대안은? (하)

포털 평점 < 관람 인증 평점

적지 않은 영화에 대한 '평점 테러'의 피해가 심각하다. 영화 개봉 전, 이를 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혐오와 공격을 더해 10점 만점에 1점을 부과하며 일부러 점수를 낮추는 행위다. 포털사이트 영화 게시판이 공격의 주요 무대다. 최근작 '82년생 김지영'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평점 테러'가 최근 더욱 광범위하게 자행되면서 영화계 안팎에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절실하다. 3회에 걸쳐 평점 테러의 폐해를 짚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포털, 영화 안봐도 평점 주고 리뷰도 네이버 "영화계 의견 수렴할 뜻 있다" CGV·롯데시네마 등 관람 인증 평점 "인증된 관객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문화의 영역인 영화에 가해지는 악의적인 공격과 혐오를 차단할 방법은 과연 있을까. '평점 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영화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평점 테러'의 진원지로 꼽히는 포털사이트 영화 게시판은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쓰고 작품에 대한 점수도 매길 수 있다. 저마다의 생각을 표출하는 무대이지만 온라인 댓글 기능이 야기한 부정적인 논란처럼 포털사이트 평점도 악의 질은 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잦다.

●포털 "표현의 자유 고려...영화계 의견 반영"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평점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네트즌 평점'과 네이버 영화사이트를 통해 예매한 실

관객 전용의 '관객평점'을 구분한다. 반면 다음은 누구나 평점을 매기고 리뷰를 쓰는 '네트즌 평점' 하나만 갖추고 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영화를 보지 않은 이들이 그 작품을 평가하고 욕하는 것이 대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영화를 본 관객만 평점을 주고 리뷰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견은 꼭 영화계의 목소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 '82년생 김지영'을 향한 '평점 테러'를 통해 그 심각성을 목격한 관객들 역시 "영화를 본 사람만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포털사이트 영화 게시판이 '평점 테러'에 악용되고 있지만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포털은 다양한 의사표현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문제(평점 테러)가 제기될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도 "영화계의 우려나 의견이 있다면 수렴할 뜻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포털 평점, 믿고 거른다"

사실 관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영화사이트에서는 포털사이트 평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지 오래다. '평점 테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포털 평점 믿고 거른다'는 반응이 줄 잇는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얻는 평점도 있다. 멀티플렉스 극장체인들이 자사 예매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평점이다. CGV는 예매 당사자만 점수를 매기는 'CGV 애그자수'를 브랜드로 만들었고, 롯데시네마 역시 예매한 관객만 해당 작품에 평점을 부여하는 구조다.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강효미 회장은 "포털사이트 평점 사이트가 이슈의 장으로 전락할 때가 많아 CGV, 롯데시네마처럼 관람객으로 인증된 관객이 남기는 평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동백꽃 필 무렵' 촬영현장에서 스포일러 주의를 피했다.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입을 닫고 있다. 사진제공 | KBS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모든 관계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종영까지 6회만을 남겨놓고 막바지 촬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 스포일러 등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책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가장 최근 방송일인 10월31일 18.4%(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상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진과 출연진은 취재진과 접촉을 피한 채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자신들의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괜한 스포일러로 변질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방송 초반부터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한 극중 연쇄살인범 '까불이'와 죽은 여성의 정체(순담미)로 밝혀지는 등 미스터리가 해결됐음에도 마지막까지 이야기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다. 최종회 대본이 완성되면서 촬영현장의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다. 제작진은 출연자에 완성된 대본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각 출연자의 등장 부분만 일부 발췌해 전달하고 있다.

드라마 인기의 또 다른 주역인 임삼춘 작가도 갑작스런 스포트라이트에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다.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지만, 자신을 통해 "많은 관심이 감사하다. 그동안 해왔듯이 조용히 글 쓰는 작업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

제작사인 팬터테이먼트는 5일 "그동안 시청자들이 궁금해온 수수께끼가 해소됐지만, 마지막까지 풀이될 에피소드가 남아 있어 관련 코멘트를 하는 것이 적절이 부담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보이콧 재팬' 속에서 日 영화 이외의 결과

애니 '날씨의 아이' 박스오피스 3위 아베 정권 비판 '신문기자'는 저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항하는 '보이콧 재팬' 상황에서 일본영화 두 편이 개봉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시국 분위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 영화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반일감정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 작품은 오히려 선전했다.

10월30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가 첫 주 33만 명(이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동원한 데 이어 상영 2주째인 4일과 5일에도 박스오피스 3위를 유지해 누적 38만 여명을 모았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개봉 초 성적으로는 눈에 띄는 성과다. 연출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쌓은 팬덤의 힘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아베 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한 '신문기자'는 10월17일 개봉해 4일 기준 누적 9901명에 그쳤다. 일본의 정치 및 언론 권력을 비판한 메시지가 '보이콧 재팬' 분위기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주목받았지만, 소수에 불과한 상영관 등 한계 속에 관객 동원에 실패했다.

'보이콧 재팬'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본 작품이라고 일부러 거르지도 않았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영화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특히 '날씨의 아이'의 수입사 미디어캐슬은 4일 입장문까지 내고 "첫 주 33만 명에 그쳤다"면서 스스로 '흥행 실패'로 규정한 뒤 "일본영화라는 편견으로 외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감독의 전작인 '너의 이름은.'이 2017년 1월 개봉해 첫 주 110만 명(누적 371만 명)을 동원한 점과 비교한 탓이다. 이에 영화 자체의 완성도와 대중적인 평가는 외면한 채 보이콧 탓만 하는 수입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혜리 기자

안정환 vs 서장훈 vs 김병현... '편애중계' 눈에 띄네

(MBC 새 예능)

축구스타 안정환과 농구 레전드 서장훈, 미국과 국내 마운드를 누볐던 김병현이 기투합해 이미 방송가에 자리 잡은 '스포테이너'의 명성을 이어갈 기세다. 5일 밤 9시50분 첫 방송한 MBC '편애중계'가 그 무대다. 안정환·김성주, 서장훈·봄, 김병현·김제동이 각기 짝을 이뤄 시청자들의 사연을 스포츠 중계 방식으로 '편애' 응원하는 내용이다.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단연 김병현이다. 이날 오전 제작발표회에서 "이렇게 재밌는지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이라며 너스레를 떨 그는 선수 시절 거친 이미지가 강했던 탓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운동할 때처럼 어딘가에 몰입해 살고 싶어 방송에 도전하게 됐다"는 그는 "필드만 다들 뿐 선수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정환 서장훈 김병현

이런 각오는 동료들에 의해 이미 인정받았다. 그와 짝을 이룬 김제동은 "묵직한 한 방이 있다"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당부했다. 안정환은 "쑥스러움과 순박함 등 마운드에서 보지 못한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고, 서장훈은 "순수함에 대중이 호감을 보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병현에 비하면 안정환과 서장훈은 이제 프로페셔널 연예인이라 불려도 무방할 만큼 각기 다른 무대에서 안정감 있는 재능을 과시해왔다. 안정환은 축구 해설위원의 전문성을 예능프로그램에 접목하고, 서

장훈은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웃음과 재미를 주고 있다.

실제로 안정환은 '단짝' 김성주와 호흡을 맞춰 현역 축구 해설위원의 모습을 녹여냈다. 그는 "내 편이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응원이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연출자 이재석 PD는 "서장훈은 심리전에 강해 출연자들의 행동 하나를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캐스팅 배경을 설명했다.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작은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서장훈, 봄, 안정환, 김성주, 김병현, 김제동까지 6명의 편애중계진이 현장으로 달려가 이유를 불문하고 오후 내 선수만을 편애하고 응원하며 그들의 도전을 중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백슬미 기자



날씨의 아이 신문기자